رئاسة الشؤون الدينية
بالمسجد الحرام والمسجد النبوي

한국어 | كوري | رِسَالَةٌ فِي الدِّمَاءِ الطَّبِيعِيَّةِ لِلنِّسَاءِ

여성의 자연적인 출혈에 관한 서한

저자, 대학자이신 쉐이크
무함마드 빈 쇄리흐 알-우사이민

ⓒ جمعية خدمة المحتوى الإسلامي باللغات ، ١٤٤٨هـ

العثيمين ، محمد
رسالة في الدماء الطبيعية للنساء - كوري. / محمد العثيمين ؛
جمعية خدمة المحتوى الإسلامي باللغات - ط١. .- الرياض ، ١٤٤٨هـ
٩٧ ص ؛ ..سم

رقم الإيداع: ١٤٤٨/٧٩٧٢
ردمك: ٩٧٨-٦٠٣-٥١٧-٦٥٦-٩

رِسَالَةٌ فِي الدِّمَاءِ الطَّبِيعِيَّةِ لِلنِّسَاءِ

여성의 자연적인 출혈에 관한 서한

بِقَلَمِ فَضِيلَةِ الشَّيْخِ العَلَّامَةِ
مُحَمَّدِ بْنِ صَالِحٍ العُثَيْمِينِ
غَفَرَ اللَّهُ لَهُ وَلِوَالِدَيْهِ وَلِلمُسْلِمِينَ

저자, 대학자이신 쉐이크
무함마드 빈 솨리흐 알-우사이민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부모와 무슬림들을 용서
해 주시기를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여성의 자연적인 출혈에 관한 서한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모든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미하며, 그분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께 용서를 구하며, 그분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영혼의 악함과 우리 행위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는 그 누구도 방황케 할 수 없으며, 그분께서 방황케 하시는 자는 그 누구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경배받을 대상이 없으며 그분께는 대등한 존재가 없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함마드가 그분의 종복이자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과 교우들, 그리고 심판의 날까지 선행으로 그들을 따르는 이들에게 자비와 평화를 충만히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성에게 발생

하는 출혈, 즉 월경과 비정상 출혈, 그리고 산후 출혈은 그 내용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규정들을 숙지하며,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중 옳고 그름을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들 중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기각할지 결정함에 있어, 꾸란과 순나에 명시된 내용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1-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복들에게 경배의 수단이자 의무로 지우신 하나님의 규정들이 바탕을 두고 있는 두 가지 기본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2- 또한 꾸란과 순나에 의존할 때 마음의 평온과 가슴의 위안을 얻고, 영혼이 편안해지며,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증거를 필요로 하는 대상일 뿐, 그 자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말씀 외

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력한 견해에 따르자면 교우들 중 학자들의 말씀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단 성서(꾸란)와 순나에 그것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하비(선지자의 교우)의 견해와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성서(꾸란)와 순나에 그것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성서와 순나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다른 사하비(선지자의 교우)의 견해와 모순된다면, 두 견해 중 더 타당한 것을 가려내어 우세한 견해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فَإِن تَنَٰزَعۡتُمۡ فِي شَيۡءٖ فَرُدُّوهُ إِلَى ٱللَّهِ وَٱلرَّسُولِ إِن كُنتُمۡ تُؤۡمِنُونَ بِٱللَّهِ وَٱلۡيَوۡمِ ٱلۡأٓخِرِۚ ذَٰلِكَ خَيۡرٞ وَأَحۡسَنُ تَأۡوِيلًا﴾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대해 논쟁을 벌인다면, 그것을 하나님과 사도에게로 돌리라. 만일 너희가 하나님과 최후의 날을 믿는다면 말이라. 그것이 더 낫고 결과도 더 아름다우니라. [안-니싸: 59].

이 서한은 이러한 출혈과 그 규정들에 대해 명확

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담은 요약본이며, 다음의 장들로 구성됩니다:

· 제1장: 월경의 의미와 그 지혜.

· 제2장: 월경의 시기와 기간.

· 제3장: 월경에 발생하는 돌발 상황.

· 제4장: 월경의 규정.

· 제5장: 비정상 출혈과 그 규정.

· 제6장: 산후 출혈과 그 규정.

· 제7장: 월경을 억제하거나 유발하는 수단, 그리고 임신을 방지하거나 낙태시키는 수단의 사용.

제1장: 월경의 의미와 그 지혜

월경(알하이드)의 어원적 의미: 어떤 것이 흐르고 흘러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슬람 율법에서의 의미: 여성에게 자연의 이치에 따라 특별한 원인 없이 정해진 시기에 발생하는 피를 말합니다. 이는 질병, 상처, 유산, 혹은 출산으로 인한 것이 아닌 자연적인 피입니다. 자연적인 피이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 상태, 환경, 기후에 따라 차이가 나며, 이로 인해 여성들 사이에서 명백하고 뚜

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속에 담긴 지혜: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는 뱃속 밖의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영양을 섭취할 수 없으며, 그에게 가장 자비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어떠한 음식도 전달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여성의 몸 안에 혈액 분비물을 마련하시어,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 없이 그 피로 영양을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그 피는 탯줄을 통해 태아의 몸으로 스며들어 혈관을 흐르며 영양을 공급합니다. 가장 훌륭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월경에 담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임신하면 월경이 멈추고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경을 하지 않습니다. 수유하는 여성의 경우에도 월경을 하는 이가 적으며, 특히 수유 초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2장: 월경의 시기와 기간

이 장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논점: 월경이 발생하는 연령.

두 번째 논점: 월경의 기간.

첫 번째 논점에 대하여: 월경이 주로 발생하는 연령은 12세에서 50세 사이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신체 상태, 환경, 기후에 따라 그 이전이나 이후에 월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은(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이견을 보였습니다: 월경이 발생하는 연령에 특정한 한계가 있어 여성이 그 이전이나 이후에는 월경을 하지 않으며, 그 기간을 벗어나 발생하는 출혈은 월경이 아닌 비정상적인 출혈로 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 학자들은 이견을 보였습니다. 앗다리미는 여러 이견들을 언급한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있어 이 모든 견해들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은 실제 발생 여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태나 연령에서든 출혈이 발견된다면, 그 양이 얼마이든 간에 그것은 월경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1]

앗다리미가 말한 바가 옳으며, 이는 쉐이크 알이슬람 이븐 타이미야가 선택한 견해이기도 합니다[2]. 따라서 여성이 월경혈을 보았다면 그녀가 9세 미만이든 50세 이상이든 관계없이 그녀는 월경 중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께서 월경에 관한 규정들을 월경의 실제 발생 여부에 결부시키셨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께서 이를 위해 특정한 연령을 지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들이 결부된 실제 발생 여부로 판단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월경을 특정 연령으로 제한하려면 성서나 순나에서 근거를 찾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논점인 월경의 기간, 즉 월경이 지속되는 시간의 길이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학자들은 크게 의견을 달리하여

---

[1] 앗다리미 저, 『월경 중 혼란을 겪는 여성의 규정』 (17쪽).

[2] 알부카리 수록: 월경의 장, 월경 중인 여성은 성전의 타와프를 제외한 모든 순례 의식을 수행한다는 절, 번호 (305), 및 무슬림 수록: 성지순례의 장, 이흐람의 종류에 대한 설명 절, 번호 (1211).

약 여섯 또는 일곱 가지의 견해가 존재합니다. 이븐 알문디르(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가 말했습니다: "어떤 무리는 '월경의 최소 기간과 최대 기간에 일수(日數)로 정해진 한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1]

내가 말하건대: 이 견해는 앞서 언급한 앗다리미의 견해와 같으며, 쉐이크 알이슬람 이븐 타이미야가 선택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서, 순나, 그리고 타당한 유추가 이를 뒷받침하므로 이것이 올바른 견해입니다.

첫 번째 근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وَيَسْـَٔلُونَكَ عَنِ ٱلْمَحِيضِۖ قُلْ هُوَ أَذًى فَٱعْتَزِلُواْ ٱلنِّسَآءَ فِي ٱلْمَحِيضِ وَلَا تَقْرَبُوهُنَّ حَتَّىٰ يَطْهُرْنَ...﴾

그들이 그대에게 월경에 관하여 물으니 말하라. "그것은 해로운 것이라. 그러니 월경 중에는 여성들

[1] 알부카리 수록: 우므라의 장, 우므라의 보상은 노고에 비례한다는 절, 번호 (1662), 및 무슬림 수록: 성지순례의 장, 이흐람의 종류에 대한 설명 절, 번호 (1211).

을 멀리하고, 그녀들이 청결해질 때까지 가까이 가지 말라..." [알-바까라: 222]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금지의 기한을 '청결해짐'으로 정하셨고, 하루 밤낮, 3일, 또는 15일이 지나는 것으로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이 규정의 근거가 월경의 존재 유무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월경이 존재하면 규정이 적용되고, 월경에서 청결해지면 그 규정들은 소멸됩니다.

두 번째 근거: 사히흐 무슬림에 확증된 바에 따르면, 우므라를 위한 이흐람 상태에서 월경을 시작한 아이샤에게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افْعَلِي مَا يَفْعَلُ الْحَاجُّ، غَيْرَ أَنْ لَا تَطُوفِي بِالْبَيْتِ حَتَّى تَطْهُرِي». قَالَتْ: فَلَمَّا كَانَ يَوْمُ النَّحْرِ طَهُرَتْ، فَأَفَاضَتْ.

«그대가 청결해질 때까지 성전을 도는 것(타와프)을 제외하고는 순례자가 행하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그녀가 말했습니다: "희생제 당일이 되어 청결해지자, 저는 이파다(타와프)를 행하였습니

다." 하디스[1].

또한 두 사히흐(부카리와 무슬림)에 따르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انتَظِرِي فَإِذَا طَهُرْتِ فَاخْرُجِي إِلَى التَّنْعِيمِ».

«기다리십시오. 그러다 청결해지거든 탄임으로 나가십시오»[2]. 이처럼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금지의 기한을 '청결해짐'으로 삼으셨고 특정 시간으로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규정이 월경의 유무에 결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근거: 일부 법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이러한 추정치와 세부 사항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서나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할 필요성, 아니 필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만일

---

1 『입법자가 규정을 결부시킨 명칭들에 관한 서한』 (35쪽).

2 이전 출처 (36쪽).

그것이 종복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사항이었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명백히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단식, 혼인, 이혼, 상속 등 그에 수반되는 율법적 규정들이 지니는 중요성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께서 예배의 횟수, 시간, 루쿠으(절하기), 수주드(엎드리기)를 명확히 밝히신 것과 같습니다. 또한 자카(의무 희사)와 관련하여 부과 대상 재산, 기준액, 액수, 지급처를 명확히 하셨으며, 단식의 기간과 시기, 대순례(핫즈)와 소순례 등도 명확히 하셨습니다. 심지어 먹고, 마시고, 자고, 성관계를 맺고, 앉고, 집에 들어가고 나가는 예절부터 용변을 보는 예절, 나아가 용변 후 돌로 닦아내는 횟수 등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것까지 모든 것을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로써 종교를 완성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은총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

신 바와 같습니다:

﴿...وَنَزَّلْنَا عَلَيْكَ ٱلْكِتَٰبَ تِبْيَٰنًا لِّكُلِّ شَىْءٍ...﴾

...우리가 그대에게 성서를 내리니, 이는 모든 것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요... [안-나흘: 89], 그리고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مَا كَانَ حَدِيثًا يُفْتَرَى وَلَٰكِن تَصْدِيقَ الَّذِى بَيْنَ يَدَيْهِ وَتَفْصِيلَ كُلَّ شَىْءٍ...﴾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전의 것을 확증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요... [유쑤프: 111].

이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서나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에 이러한 추정치와 세부 사항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것들에 의존할 수 없음이 명백해집니다. 오직 의존해야 할 것은, 그것의 존재 유무에 따라 율법의 규정들이 결부되어 있는 '월경'이라는 명칭 자체입니다. 이 근거, 즉 '성서와 순나에 해당 규정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인정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원리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교 지식 문제에서도 도움이 됩니

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율법 규정은 하나님의 성서, 그분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 알려진 합의(이즈마으), 또는 올바른 유추(끼야쓰)와 같은 율법적 근거를 통해서만 확립되기 때문입니다. 셰이크 알이슬람 이븐 타이미야는 그의 한 원칙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월경'이라는 명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서와 순나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규정들을 결부시키셨지만, 그 최소 기간과 최대 기간을 정하지 않으셨으며, 두 월경 사이의 청결 기간 또한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공동체가 보편적으로 겪는 일이며 사람들이 이에 대한 규정을 필요로 함에도 그러하셨습니다. 언어적으로도 분량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특정한 한계를 두는 자는 성서와 순나를 위반한 것입니다"[1]. 그의 말이 끝났습니다.

네 번째 근거: 타당성, 즉 일관되고 올바른 유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월경을 해로운 것이라고 그

[1] 이전 출처 (38쪽).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월경이 존재하는 한 해로움은 존재하며, 둘째 날과 첫째 날 사이에 차이가 없고, 넷째 날과 셋째 날 사이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열여섯째 날과 열다섯째 날 사이에 차이가 없고, 열여덟째 날과 열일곱째 날 사이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월경은 월경이며 해로움은 해로움입니다. 두 날 모두에 규정의 근거(해로움)가 똑같이 존재하는데, 근거가 동일한 두 날에 어떻게 서로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이것은 올바른 유추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근거가 동일하기에 그 두 날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유추가 아닙니까?

다섯 번째 근거: 기간을 한정하는 자들 견해의 불일치와 모순입니다. 이는 이 문제에 관하여 반드시 따라야 할 확고한 근거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단지 이즈티하드(학자들의 독자적 추론)에 의한 규정들로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며, 어느 한 견해가 다른 견해보다 우선하여 따라야 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논쟁 시 판단의 기준은 오직 성

서와 순나입니다.

그러므로 월경의 최소 기간과 최대 기간에 한계가 없다는 견해가 강력하며 유력한 견해임이 분명해졌다면, 상처 등의 특별한 원인 없이 여성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든 피는 특정 기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월경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 출혈이 영구히 끊이지 않거나 한 달에 하루나 이틀 정도 아주 짧은 기간만 멈추며 계속되는 경우는 예외인데, 이것은 이스티하다(비정상 출혈)에 해당합니다. 이스티하다(비정상 출혈)와 그 규정들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

셰이크 알이슬람 이븐 타이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궁에서 나오는 모든 출혈은, 그것이 이스티하다라는 증거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월경으로 보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1].

또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혈관이나

[1] 알-부카리 전승: 신앙의 서, 종교는 쉬운 것이다 장, 번호 (39), 아부 후라이라(알라께서 그를 기뻐하시길)가 전한 하디스.

상처의 피로 밝혀지지 않은 이상, 발생하는 출혈은 모두 월경입니다"[1]. 끝.

이 견해는 근거의 측면에서 가장 유력할 뿐만 아니라, 기간을 특정하는 자들이 제시한 복잡한 내용보다 훨씬 이해하고 인식하기 쉬우며, 실천과 적용에 있어서도 더 용이합니다. 이처럼 평이하고 용이한 것은 이슬람 종교의 정신과 '쉬움과 용이함'이라는 대원칙에 부합하므로 받아들여지기에 더 합당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وَمَا جَعَلَ عَلَيۡكُمۡ فِي ٱلدِّينِ مِنۡ حَرَجٖ...﴾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종교에 어떠한 어려움도 두지 않으셨노라... [알-핫즈: 78],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إِنَّ الدِّينَ يُسْرٌ وَلَنْ يُشَادَّ الدِّينَ أَحَدٌ إِلَّا غَلَبَهُ فَسَدِّدُوا وَقَارِبُوا وَأَبْشِرُوا».

[1] 알-부카리(미덕의 서, 선지자(그에게 알라의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의 특성 장, 3560번), 무슬림(덕성의 서, 그분(그에게 알라의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이 죄악을 멀리하심 장, 77/2327번) 전승.

«실로 종교는 쉬운 것입니다. 누구든 종교를 무리하게 실천하려 하면 도리어 그것에 압도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올바르게 행하고 완벽에 가깝도록 노력하며 기뻐하십시오.» 알-부카리 전승[1].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성품 중에는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أَنَّهُ مَا خُيِّرَ بَيْنَ أَمْرَيْنِ إِلَّا اخْتَارَ أَيْسَرَهُمَا مَا لَمْ يَكُنْ إِثْمًا».

«그분께서는 두 가지 일 중에서 선택해야 할 때,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한 그중 더 쉬운 것을 선택하셨습니다»[2].

임신부의 월경:

대부분의 경우 여성이 임신을 하면 출혈이 멈춥니다. 이맘 아흐마드(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가 말했습니다: "여성들은 출혈이 멈춤으로써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3].

만약 임신부가 출혈을 보았을 때, 그것이 출산 전

---

1 마즈무으 알-파타와 (19/238-239).

2 알-아우사트 (356/2).

3 참조: 알-무그니 (405/1).

하루나 이틀, 혹은 사흘 전과 같이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산통을 동반하여 발생한다면 그것은 산후 출혈(니파스)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출혈이 출산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시점에 발생하거나 출산이 임박했지만 산통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다면 그것은 산후 출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월경의 규정이 적용되는 월경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월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비정상 출혈로 보아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으나, 올바른 견해는 그 출혈이 그녀의 평소 월경 양상과 같다면 월경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출혈은 그것이 월경이 아님을 증명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월경으로 보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성서와 순나 어디에도 임신부의 월경을 부정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리크[1]와 샤피이[2] 학파의 견해이며, 셰이

[1] 알-무다와나 (1/ 155), 안-나와디르 와 아즈-지야다트 (1/ 136).

[2] " 알-마르와지의 이크틸라프 알-푸카하(193쪽), 알-아우사트(2/239)."

크 알이슬람 이븐 타이미야가 선택한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는 『알이크티야라트』(30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알바이하끼는 이를 아흐마드로부터의 전승으로 기록하였으며, 나아가 그가 이 견해로 돌아왔다고 전하였습니다." 끝.

따라서 임신부의 월경에도 임신하지 않은 여성의 월경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다음 두 가지 사안은 예외입니다:

첫 번째 사안: 이혼. 임신하지 않은 여성 중 숙려기간(잇다)을 거쳐야 하는 여성을 월경 기간에 이혼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임신하지 않은 여성과 월경 중에 이혼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다음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فَطَلِّقُوهُنَّ لِعِدَّتِهِنَّ...﴾

...그녀들을 이혼하고자 할 때는 그녀들의 숙려기간에 맞추어 이혼하고... [앗-딸라끄: 1], 그러나 생리 중인 임신부에게 이혼을 선언하는 것은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신부에게 이혼

을 선언한 자는 그녀가 생리 중이든 청결한 상태이든 상관없이 그녀의 숙려 기간에 맞추어 이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숙려 기간은 임신 자체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여성들과는 달리 임신부의 경우에는 부부 관계 후에도 그녀와 이혼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안: 다른 여성들의 월경과는 달리, 임신부의 월경으로는 숙려 기간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신부의 숙려 기간은 그녀가 생리를 하든 안 하든 출산을 통해서만 끝나기 때문입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وَأُوْلَاتُ الأَحْمَالِ أَجَلُهُنَّ أَن يَضَعْنَ حَمْلَهُنَّ...﴾

...임신한 여성들의 기한은 그녀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라... [앗-딸라끄: 4].

제3장: 월경에 발생하는 돌발 상황

월경에 발생하는 이례적인 변화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월경 기간의 증가 또는 감소. 예를 들어 여성의 평소 생리 기간이 6일인데 출혈이 7일까지 지속되거나, 평소 생리 기간이 7일인데 6일 만에 깨끗해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유형: 월경 주기가 앞당겨지거나 늦춰짐. 예를 들어 평소 주기가 월말인데 월초에 출혈을 보거나, 평소 주기가 월초인데 월말에 출혈을 보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한 규정에 관해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올바른 견해는 여성이 출혈을 볼 때는 생리 중인 것이고, 출혈에서 깨끗해졌을 때는 청결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평소 기간보다 길어졌든 짧아졌든, 주기가 앞당겨졌든 늦춰졌든 상관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근거는 이전 장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입법자(하나님과 사도)께서는 월경의 규정을 월경의 실제 발생 여부에 결부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샤피이 학파의 견해[1]이며, 셰이크 알이슬

[1] 알-움 (82/1).

람 이븐 타이미야가 선택한 견해[1]이기도 합니다. 『알무그니』의 저자 또한 이 견해를 지지하고 옹호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 학파에서 언급된 방식대로 평소 주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었다면,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당신의 공동체에게 이를 분명히 밝히셨을 것이며, 결코 그 설명을 미루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시기에 설명을 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분의 아내들과 다른 여성들은 항상 이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그분께서 결코 그것을 밝히는 데 소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로부터 '평소 주기'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이 전해진 것은 오직 비정상 출혈 (이쓰티하다)을 겪는 여성의 경우뿐이며, 그 외에는 없습니다[2]. 끝.

세 번째 유형: 노란색이나 탁한 색의 분비물. 여

---

[1] 마즈무으 알-파타와 (19/238-239).

[2] 알-무그니 (1/396)

성이 상처의 진물처럼 노란색을 띠는 출혈을 보거나, 노란색과 검은색 사이의 탁한 색을 띠는 출혈을 보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것이 월경 기간 중에 발생하거나, 청결해지기 전 월경과 이어져 발생한다면 그것은 월경이므로 월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청결해진 후에 발생한다면 그것은 월경이 아닙니다. 움무 아띠야(하나님께서 그녀를 기뻐하시길)의 다음과 같은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청결해진 후에 나오는 노란색이나 탁한 색의 분비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부 다우드가 사히흐(정확한) 전승 계보로 전했습니다[1]. 알부카리 또한 이 하디쓰를 전승하였으나, "(청결해진 후)"라는 그녀의 언급은 생략하였습니다. 대신 그는 해당 장의 제목을 "월경 기간 외의 노란색 및 탁한 분비물 장"이라고 달았습니다[2].

그의 해설서인 『파트흐 알바리』에서 다음과

[1] 아부 다우드 전승: 청결의 서, 정결해진 후 탁한 색과 노란색 분비물을 보는 여성에 관한 장, 번호 (307).

[2] 알-부카리 전승: 월경의 서, 월경 기간 외의 노란색과 탁한 분비물 장, 번호 (326).

같이 말했습니다: «이로써 앞서 언급된 아이샤의 말씀, 즉 "하얀 분비물을 볼 때까지"라는 하디스와 이 장에 언급된 움무 아띠야의 하디스를 조화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즉, 아이샤의 하디쓰는 생리 기간 중에 노란색이나 탁한 색의 분비물을 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그 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움무 아띠야가 말한 바에 따른다는 것입니다.»[1] 끝.

그가 언급한 아이샤의 전승은 알-부카리가 이 장 앞에서 확정적으로 수록한 무알라끄(하디스의 전달자 사슬 시작 부분이 생략된 전승)로[2], 여성들이 그녀에게 얕-두르자(여성이 생리의 흔적이 남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것)를 보내곤 하였는데, 그 안에는 노란색 분비물이 묻은 알-쿠르쑤프(면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얀 분비물을 볼 때까지 서두르지 마십시오.»[3]

---

[1] 파트흐 알-바리 (1/ 426).

[2] 사히흐 알-부카리 (1/ 71).

[3] 알-부카리 무알라끄(하디스의 전달자 사슬 시작 부분이 생략된 전승): 월경의 서, 월경의 시작과 끝의 장, 하디스 번호 (320) 이전.

하얀 분비물은 월경이 끊어질 때 자궁이 배출하는 하얀 액체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생리의 간헐적 끊어짐입니다. 하루는 피를 보고 하루는 깨끗함을 보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이러한 상태가 여성에게 항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실로 이는 부정출혈이며 이를 겪는 여성에게는 부정출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지속되지 않고 일정 시간만 나타나며 완전한 정결 시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학자들(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길)은 이 깨끗해진 상태에 관하여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를 정결로 보아야 합니까 아니면 생리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까?

앗-샤피이의 두 가지 의견 중 더 올바른 견해에 따르면 생리의 규정이 적용되어 생리로 간주됩니다. 이는 이슬람의 스승 이븐 타이미야와 알-파이끄 저자가 선택한 의견이며 아부 하니파의 학설이기

도 합니다[1,23] 이는 그 상태에서 하얀 분비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며 만약 그것이 정결로 간주된다면 그 전후가 모두 각각의 생리가 될 것인데 이를 주장하는 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생리 주기에 따른 대기 기간이 5일 만에 종료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그것이 정결로 간주된다면 이틀마다 전신 세정 등을 해야 하므로 곤란함과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에서 곤란함은 배제되어 있으니 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한발리 학파의 유명한 견해에 따르면 출혈은 생리이고 깨끗한 상태는 정결입니다. 다만 그 합이 생리의 최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초과하는 피는 부정출혈이 됩니다[4].

『알 무그니』에서 말하기를 출혈이 멈춘 시간이 하루 미만이라면 그것은 정결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산후 출혈에 관해 언급했던 전승 즉 하루 미

---

1 알-아슬 (19/2-20).

2 알-인사프에서 그녀들로부터 전승됨.

3 알-움 (1/ 83-84).

4 알-무그니 (226/1).

만의 시간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에 근거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실로 이것이 올바른 견해입니다. 피는 한 번 흐르고 다시 멈추기도 하는데 매 시간 정결해졌다고 하여 전신 세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곤란함을 유발하므로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وَمَا جَعَلَ عَلَيۡكُمۡ فِي ٱلدِّينِ مِنۡ حَرَجٖ...﴾

﴿하나님께서 종교에 있어 너희에게 어떠한 곤란함도 두지 아니하셨노라﴾. [알-핫즈: 78]. 그가 말하기를 이에 따라 하루 미만으로 출혈이 멈추는 것은 정결이 아닙니다. 단 그녀의 습관적인 주기 끝에 멈추거나 하얀 분비물을 보는 등 정결을 나타내는 징후를 본 경우는 예외입니다.[1] 끝.

그러므로 알-무그니 저자의 이 말은 두 의견 사이의 중도가 되며 하나님께서 올바른 것을 가장 잘 아십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출혈이 말라 여성이 단지 습기

[1] 알-무그니 (257/1).

만을 보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것이 생리 중에 있거나 정결해지기 전 생리와 이어져 있다면 생리입니다. 그러나 정결 이후라면 생리가 아닙니다. 이는 그러한 상태가 결국 황색 혹은 탁색 분비물에 속하게 되며 그것이 이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제4장 생리의 규정에 관하여.

생리에는 20가지가 넘는 많은 규정이 있으나 그 중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배입니다. 월경 중인 여성에게는 의무 예배와 자발적 예배가 모두 금지되며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녀에게 예배는 의무가 아니나 예배 시간 중 온전한 한 라카아 분량을 확보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때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의 시작이든 끝이든 상관없이 예배가 의무가 됩니다.

시작 부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여성이 일몰 후 한 라카아 분량의 시간이 지난 뒤 월경을 시작했다면 그녀는 정결해진 후 마그립 예배를 보충해야 합니다. 월경 전 한 라카아 분량의 예배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부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여성이 일출 전 한 라카아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두고 월경이 멈췄다면 그녀가 전신 세정을 한 후 파즈르 예배를 보충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한 라카아를 행할 수 있는 예배 시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온전한 한 라카아를 수행하기에 부족한 시간만을 가졌다면 예를 들어 첫 번째 예시에서 일몰 직후 월경이 시작되거나 두 번째 예시에서 일출 직전 월경이 멈춘 경우에는 예배가 의무가 아닙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مَنْ أَدْرَكَ رَكْعَةً مِنَ الصَّلَاةِ فَقَدْ أَدْرَكَ الصَّلَاةَ».

«예배의 한 라카아를 얻은 자는 실로 그 예배를 얻은 것이라.» 합의된 전승[1], 이 전승의 의미는 한 라

[1] 알-부카리: 예배 시간의 서, 예배 중 한 라카아를 얻은 자의 장(580번). 무슬림: 성원과 예배 장소의 서, 예배 중 한 라카아를 얻은 자는 참으로 그 예배에 도달한 것이라는 장(607번).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 전승.

카아 미만을 얻은 자는 예배를 얻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아스르 예배 시간 중 한 라카아 분량에 도달했다면 아스르와 함께 두흐르 예배도 드려야 합니까? 혹은 이샤 예배 시간 중 한 라카아 분량에 도달했다면 이샤와 함께 마그립 예배도 드려야 합니까?

이에 관해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으나 올바른 견해는 그녀가 시간을 맞이한 그 예배 즉 오직 아스르와 마지막 이샤 예배만이 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مَنْ أَدْرَكَ رَكْعَةً مِنَ الْعَصْرِ قَبْلَ أَنْ تَغْرُبَ الشَّمْسُ فَقَدْ أَدْرَكَ الْعَصْرَ».

«해가 지기 전 아스르 예배의 한 라카아를 얻은 자는 실로 아스르 예배를 얻은 것이라.» 합의된 전승[1],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

[1] 알-부카리: 예배 시간의 서, 파즈르 예배 중 한 라카아를 얻은 자의 장(579번). 무슬림: 성원과 예배 장소의 서, 한 라카아를 얻은 자는 그

시길)께서는 "그가 두흐르와 아스르를 모두 얻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두흐르의 의무를 언급하지 않으셨으며 기본 원칙은 책임의 면제입니다. 이는 아부 하니파와 말-리크의 학설이며 『샤르후 알-무핫답』에서 그들로부터 전해진 바입니다[1].

한편 하나님을 염원함, 탁비르, 타쓰비후, 타흐미드, 식사 시 등의 바쓰말라, 하디스와 피끄흐 읽기,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아민'이라고 말하는 것, 꾸란 청취 등은 그녀에게 전혀 금지되지 않습니다. 이는 두 '사히흐'와 그 외 문헌에서 입증되었습니다.

«أَ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كَانَ يَتَّكِئُ فِي حِجْرِ عَائِشَةَ رَضِيَ اللهُ عَنْهَا وَهِيَ حَائِضٌ فَيَقْرَأُ الْقُرْآنَ».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월경 중일 때 그녀의 무릎에

예배를 얻은 것이라는 장(608번). 아부 후라이라(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 전승.

[1] 알-마즈무으 샤르흐 알-무핫답 (3/ 70).

기대어 꾸란을 낭송하셨습니다.»[1]

또한 두 사히흐에는 움무 아띠야(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전합니다:

«يَخْرُجُ الْعَوَاتِقُ وَذَوَاتُ الْخُدُورِ وَالْحُيَّضُ -يَعْنِي: إِلَى صَلَاةِ الْعِيدَيْنِ- وَلْيَشْهَدْنَ الْخَيْرَ، وَدَعْوَةَ الْمُؤْمِنِينَ، وَيَعْتَزِلُ الْحُيَّضُ الْمُصَلَّى».

«미혼 여성들과 장막 안의 여성들 그리고 월경 중인 여성들은 두 이드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하여 선한 일과 믿는 자들의 기도에 동참하되 월경 중인 여성들은 예배 장소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2]

월경 중인 여성이 스스로 꾸란을 읽는 경우 혀로

---

1 알-부카리: 월경의 서, 월경 중인 아내의 무릎에서 남성이 독송함에 관한 장(297번). 무슬림: 월경의 서, 월경 중인 아내의 무릎에 기대어 꾸란을 독송함에 관한 장(301번).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 전승.

2 알-부카리: 월경의 서, 월경 중인 여성이 두 이드 및 무슬림들의 기도에 참석하되 예배소에서 떨어져 있음에 관한 장(324번). 무슬림: 두 이드 예배의 서, 여성이 이드에 예배소로 외출하여 설교에 참석함의 허용에 관한 장(890번).

발음하지 않고 눈으로 보거나 마음으로 숙고하는 것이라면 무방합니다. 이는 무스하프나 서판을 앞에 두고 구절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읽는 것과 같습니다. 안-나와위는 『샤르'후 알-무핟답』에서 이르기를 "이견 없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1].

그러나 만약 소리 내어 읽는 것이라면 대다수 학자의 견해는 그것이 금지되며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부카리[2], 이븐 자리르 앗-따바리[3], 이븐 알-문디르[4]는 그것이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말리크와 앗-샤피이의 이전 견해에서도 그렇게 전해지며 『파트흐 알-바리』에서 전승되었습니다[5,6].

알-부카리는 이브라힘 안-나카이로부터 무알라

---

1 알-마즈무으 (2/ 357).

2 사히흐 알-부카리: 월경의 서, 월경 중인 여성은 따와프를 제외한 모든 순례 의식을 수행한다는 장, 파트흐 알-바리(1/ 407-408) 참조.

3 파트흐 알-바리 (1/ 408).

4 알-아우싸뜨 (2/ 223).

5 파트흐 알-바리 (1/ 408).

6 알-마즈무으 (2/ 356).

끄(하디스 전달 경로의 시작 부분이 생략된 전승) 형식으로 전하기를: 그 구절을 읽어도 무방합니다[1].

이슬람의 대학자 이븐 타이미야는 이븐 까씸의 파타와 전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꾸란 독송을 금지하는 데에는 순나의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실로 그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

«لَا تَقْرَأُ الحَائِضُ وَلَا الجُنُبُ شَيْئًا مِنَ الْقُرْآنِ».

«월경 중인 자나 대세정이 필요한 자는 꾸란의 어떤 것도 읽지 못합니다.»[2] 이 구절은 하디스 학자들의 합의에 따른 약한 하디스입니다.»[3]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시대에도 여성들은 월경을 하였습니다. 만

---

[1] 알-부카리 무알라끄(하디스 전달 경로의 시작 부분이 생략된 전승): 월경의 서, 월경 중인 여성은 타와프를 제외한 모든 순례 의식을 수행한다 장, 하디스 번호 (305) 이전.

[2] 앗-티르미디 전승: 청결 편, 대세정 필요자와 생리 중인 여성이 꾸란을 읽지 못한다는 것에 관한 장, 번호 (131).

[3] 앗-티르미디의 알-일랄(69쪽), 알-바이하끼의 앗-쑤난 알-쿠브라(1/309), 이븐 압둘하끄의 알-아흐카므 앗-샤르이야(1/504), 앗-자일라이의 나스브 아르-라야(1/195) 참조.

약 독송이 예배처럼 그녀들에게 금지된 것이었다면 실로 이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공동체에 밝히셨을 것이며 믿는 자들의 어머니들이 이를 배워 사람들 사이에 전파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로부터 이에 대한 금지를 전하지 않았으니 그분께서 금지하지 않으셨음을 알면서도 이를 금지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월경이 빈번했음에도 금지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금지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1] 끝.

학자들의 이견을 검토한 후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월경 중인 여성은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리 내어 꾸란을 낭송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거나 학생이 시험을 위해 낭송해야 하는 상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단식. 월경 중인 여성은 의무 혹은 자발적

[1] 마즈무으 알-파타와 (26/ 191).

단식 모두 금지되며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무 단식은 반드시 보충해야 합니다.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에 근거합니다.

"كَانَ يُصِيبُنَا ذَلِكَ -تَعْنِي: الْحَيْضَ- فَنُؤْمَرُ بِقَضَاءِ الصَّوْمِ وَلَا نُؤْمَرُ بِقَضَاءِ الصَّلَاةِ".

«우리에게 그러한 일 즉 월경이 있었으니 우리는 단식을 보충하라는 명령은 받았으나 예배를 보충하라는 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합의된 전승[1].

단식 중 월경을 시작하면 일몰 직전일지라도 단식은 무효가 되며 의무 단식인 경우 그날을 보충해야 합니다. 만약 일몰 전 체내에서 월경혈의 이동을 느꼈으나 일몰 후에 배출되었다면 올바른 견해에 따라 단식은 온전하며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체내에 머물러 있는 피는 규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 알-부카리: 월경의 서, 월경 중인 여성은 예배를 보충하지 않는다는 장(321번). 무슬림: 월경의 서, 월경 중인 여성은 예배가 아닌 단식을 보충해야 한다는 장(335번). 문구는 무슬림의 전승입니다.

또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수면 중 남성과 같은 현상을 겪는 여성에게 대세정의 의무가 있는지 질문받으셨을 때

قال: «نَعَمْ إِذَا هِيَ رَأَتِ الْمَاءَ».

대답하시기를 «그렇습니다. 그녀가 분비물을 보았을 때입니다.» 하셨기 때문입니다.[1] 규정의 근거를 이동이 아닌 배출된 정액을 보는 것에 두셨으므로 월경 역시 체내 이동이 아닌 외부 배출을 확인해야 규정이 성립됩니다.

파즈르가 밝았을 때 월경 중이었다면 파즈르 직후에 멈췄다 하더라도 그날의 단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파즈르 직전에 멈추어 단식을 시작했다면 대세정을 파즈르 이후에 하더라도 단식은 유효합니다. 이는 대세정이 필요한 자가 단식을 의도한 뒤 파즈르 이후에 씻어도 단식이 유효한 것과 같습니다.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

[1] 알-부카리: 지식의 서, 지식에서의 수줍음 장(130번), 무슬림: 월경의 서, 여성의 구슬 의무 장...(313번) 전승.

스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كَا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صْبِحُ جُنُبًا مِنْ جِمَاعٍ غَيْرِ احْتِلَامٍ ثُمَّ يَصُومُ فِي رَمَضَانَ".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몽정이 아닌 성관계로 인해 대세정이 필요한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신 뒤 라마단 단식을 행하셨습니다.» 합의된 전승[1].

세 번째 규정은 따와프입니다. 월경 중인 여성은 의무 혹은 자발적 따와프 모두 금지되며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솨파와 마르와 사이의 왕복, 아라파 체류, 무즈달리파와 미나에서의 숙박, 투석 등 핫즈와 우므라의 나머지 의식들은 그녀에게 금지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아이샤가 월경을 시작했을 때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افْعَلِي مَا يَفْعَلُ الْحَاجُّ غَيْرَ أَلَّا تَطُوفِي بِالْبَيْتِ حَتَّى تَطْهُرِي».

[1] 알-부카리: 단식의 서, 단식자의 대세정 장(1931번). 무슬림: 단식의 서, 대세정 필요 상태에서 파즈르를 맞이한 자의 단식 유효성 장(1109번).

«정결해질 때까지 성전을 순회하는 것을 제외하고 순례자가 행하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1].

따라서 정결한 상태에서 따와프를 마친 직후 혹은 싸이 중에 월경이 시작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번째 규정: 여성에 대한 고별 따와프(이별의 순회) 면제. 여성이 대순례와 소순례의 의식을 마친 후 자신의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에 월경을 시작하였고 떠날 때까지 월경이 지속된다면, 그녀는 고별 따와프 없이 떠납니다. 이븐 압바스(하나님께서 그들을 흡족히 여기시길)가 말했습니다.

"أُمِرَ النَّاسُ أَنْ يَكُونَ آخِرُ عَهْدِهِمْ بِالْبَيْتِ، إِلَّا أَنَّهُ خُفِّفَ عَنِ الْمَرْأَةِ الْحَائِضِ".

«사람들은 성전에서의 의식을 마지막으로 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월경 중인 여성에게는 이것이

[1] 알-부카리: 월경의 서, 월경 중인 여성은 타와프 외 모든 의식을 행한다는 장(305번). 무슬림: 성지순례의 서, 이흐람 방식에 관한 장(1211번).

경감되었습니다.» [합의된 전승][1].

월경 중인 여성이 작별 시 성원 (마스지드 알하람) 입구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로부터 전해진 바가 없으며 예배 행위는 전승된 근거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전승은 그 반대를 가리킵니다. 솨피야(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따와프 알-이파돠를 마친 뒤 월경을 시작했을 때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فَلْتَنْفِرْ إِذَنْ».

«그러면 바로 떠나십시오.» 합의된 전승[2].

그분은 성원 입구로 올 것을 명령하지 않으셨으

[1] 알-부카리(성지순례 서, 고별 따와프 장, 1755번), 무슬림(성지순례 서, 고별 타와프의 의무와 월경 중인 여성에 대한 면제 장, 1328번) 전승.

[2] 알-부카리: 성지순례의 서, 여성이 이파다를 마친 후 월경을 하는 경우의 장, 1757번. 무슬림: 성지순례의 서, 고별 따와프 의무의 장, 1211번 전승.

며 만약 실로 그것이 규정된 것이었다면 밝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순례(핫즈)와 소순례(우므라)의 따와프(순회)는 그녀에게 면제되지 않으며, 그녀가 청결해지면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규정은 성원에 머무는 것입니다. 월경 중인 여성은 성원에 머물 수 없으며 이드 예배 장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움무 아띠야(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하디스 때문입니다:

«يَخْرُجُ الْعَوَاتِقُ وَذَوَاتُ الْخُدُورِ وَالْحُيَّضُ».

«미혼 여성들과 장막 안의 여성들 그리고 월경 중인 여성들이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진 말씀입니다.

«يَعْتَزِلُ الْحُيَّضُ الْمُصَلَّى».

«월경 중인 여성들은 예배소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합의된 전승[1].

[1] 알-부카리: 생리 편, 생리 중인 여성이 명절에 참석하여 무슬림들의 기도에 동참하되 예배소에서는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장(324번), 무슬림: 명절

여섯 번째 규정은 성관계입니다. 남편이 그녀와 성관계를 맺는 것과 그녀가 이를 허락하는 것 모두 금지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وَيَسۡـَٔلُونَكَ عَنِ ٱلۡمَحِيضِۖ قُلۡ هُوَ أَذٗى فَٱعۡتَزِلُواْ ٱلنِّسَآءَ فِي ٱلۡمَحِيضِ وَلَا تَقۡرَبُوهُنَّ حَتَّىٰ يَطۡهُرۡنَۖ...﴾

{그들이 그대에게 월경에 관하여 물으니 말하라. 그것은 고통이니 월경 중인 여성들을 멀리하고 그녀들이 정결해질 때까지 가까이하지 말지니라.} [알-바까라: 222] 여기서 월경이란 월경의 기간과 그 장소 즉 음부를 의미합니다. 또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اصْنَعُوا كُلَّ شَيْءٍ إِلَّا النِّكَاحَ».

«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것을 하십시오.» 여기서

예배 편, 여성들이 명절에 예배소로 외출하여 남성들과 분리된 채 설교에 참석하는 것이 허용됨을 언급한 장(890번) 전승.

니카흐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무슬림 전승[1]. 또한 모든 무슬림들이 월경 중인 여성과의 성관계 금지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최후의 날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성서와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순나 그리고 무슬림들의 합의가 금지한 이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는 자는 하나님과 사도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따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알-마즈무으 샤르흐 알-무핫답』(2권 374쪽)에서 이르기를, 앗-샤피이(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가 말하기를 "이를 행한 자는 대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또한 동료 학자들은 "월경 중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허용된 것으로 믿는 자는 불신자로 판결됩니다" 하였습니다. 이상 안-나와위의 기록입니다.

실로 성관계 외에 욕구를 억제할 수 있는 입맞춤, 포옹, 음부를 제외한 신체 접촉 등은 허용되어 있

[1] 무슬림 전승: 월경 편, 월경 중인 여성이 남편의 머리를 씻기는 것의 허용 장, 번호 (302).

으니 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다만 배꼽과 무릎 사이는 가림막 없이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말했습니다:

"كَا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أْمُرُنِي فَأَتَّزِرُ فَيُبَاشِرُنِي وَأَنَا حَائِضٌ".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내가 월경 중일 때 하의를 입으라 명령하신 뒤 나와 신체를 접촉하셨습니다.» 합의된 전승[1].

일곱 번째 규정은 이혼입니다. 아내의 월경 기간 중 이혼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يَاأَيُّهَا النَّبِيُّ إِذَا طَلَّقْتُمُ النِّسَاء فَطَلِّقُوهُنَّ لِعِدَّتِهِنَّ...﴾

{오 선지자여 너희가 여성들과 이혼할 때는 그녀들의 숙려 기간에 맞추어 이혼할지니라.} [앗-딸라끄: 1] 즉 이혼 시 정해진 대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녀가 임신

[1] 알-부카리: 월경 편, 월경 중인 여성과의 접촉 장(301번), 무슬림: 월경 편, 하의 위로 월경 중인 여성과의 접촉 장(293번) 전승.

중이거나 성관계가 없었던 정결한 기간에 이혼할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생리 중에 이혼이 선언될 경우 숙려 기간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혼이 선언된 당시의 생리는 숙려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부 관계를 가진 후 두 생리 기간 사이에 이혼이 선언될 경우, 그녀가 맞이해야 할 숙려 기간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그 부부 관계로 인하여 그녀가 임신을 하여 임신으로 숙려 기간을 계산해야 할지, 아니면 임신을 하지 않아 생리로 숙려 기간을 계산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기 기간의 종류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했다면, 상황이 분명해질 때까지 이혼하는 것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앞선 구절에 따라, 생리 중인 여성과의 이혼은 금지됩니다. 두 사히흐와 그 외의 문헌에서 확증된 이븐 우마르의 하디스에 따르면, "그가 자신의 아내가 생리 중일 때 그녀와 이혼하였고, 이에 우마르가 이 사실을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 알리자,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

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이 일로 분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مُرْهُ فَلْيُرَاجِعْهَا ثُمَّ لِيُمْسِكْهَا حَتَّى تَطْهُرَ، ثُمَّ تَحِيضَ، ثُمَّ تَطْهُرَ، ثُمَّ إِنْ شَاءَ أَمْسَكَ بَعْدُ، وَإِنْ شَاءَ طَلَّقَ قَبْلَ أَنْ يَمَسَّ، فَتِلْكَ الْعِدَّةُ الَّتِي أَمَرَ اللَّهُ أَنْ تُطَلَّقَ لَهَا النِّسَاءُ».

«그에게 명령하여 그녀와 재결합하게 하십시오. 그 후 그녀가 깨끗해지고, 그 후 다시 생리를 하고 다시 깨끗해질 때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십시오. 그 후에 그가 원한다면 혼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원한다면 부부 관계를 가지기 전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성과 이혼할 때 지키도록 명령하신 숙려 기간(알-잇다)입니다.»[1]

만일 남편이 아내가 생리 중일 때 이혼을 선언하였다면 그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는 지고하신 하나님께 회개하여야 하며, 하나님과 그분 사도의 명

[1] 알-부카리(이혼 편, 5251번), 무슬림(이혼 편, 월경 중인 아내를 동의 없이 이혼하는 것의 금지, 이를 위반하더라도 이혼은 성립되며 아내와 재결합할 것을 명령받음에 관한 장, 1471번)이 이븐 우마르(하나님께서 그들 두 분을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로 전승하였습니다.

령에 부합하는 율법적인 이혼을 실시하기 위해 이혼을 취소하여 그녀를 혼인 관계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녀를 되돌린 후에는 이혼이 선언되었던 그 생리 기간으로부터 그녀가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후 그녀가 다시 한번 생리 기간을 거치고 깨끗해졌을 때, 그가 원한다면 그녀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원한다면 부부 관계를 가지기 전에 그녀와 이혼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생리 기간 중 이혼을 금지하는 것에서 예외가 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 이혼이 아내와 단둘이 있는 상태(동침 이전의 단둘이 있음)도 하지 않았고, 성관계도 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아내가 생리 중일 때 이혼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녀에게 대기 기간이 없으므로 그녀와의 이혼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فَطَلِّقُوهُنَّ لِعِدَّتِهِنَّ...﴾

그녀들의 숙려 기간을 고려하여 이혼할지니라

[앗-딸라끄: 1].

둘째: 임신 중에 월경이 있는 경우이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 만약 이혼이 보상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면, 아내가 생리를 하고 있을 때 그녀와 이혼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에 불화가 있거나 함께 살기가 불가능하여 남편이 이혼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는다면, 아내가 월경 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허용됩니다. 이븐 압바스(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한 하디스에 따르면, 싸비트 이븐 까이스 이븐 샴마스의 아내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 찾아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도여, 저는 그의 인품이나 신앙에 대하여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허나 저는 이슬람 안에서 불신앙을 저지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أَتَرُدِّينَ عَلَيْهِ حَدِيقَتَهُ؟»

«그대는 그에게 그의 정원을 돌려주겠습니까?» 그녀가 말하길: 그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اقْبَلِ الْحَدِيقَةَ وَطَلِّقْهَا تَطْلِيقَةً»

«그 정원을 받아들이고 그녀와 한 번 이혼하십시오.» [알-부카리 전승][1].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는 그녀가 생리 중이었는지 혹은 청결한 상태였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혼은 여성이 자신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필요할 때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알-무그니』에서는 생리 중 쿨으(아내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이유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쪽: 52, 7권, M판) : "«생리 기간 중 이혼을 금지하는 것은 숙려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그녀

[1] 알-부카리 전승: 이혼의 서, 훌으와 그 이혼 방법에 관한 장, 번호 (5273), 이븐 압바스(하나님께서 그들 두 분을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입니다.

가 입게 될 피해 때문입니다. 반면 파경은 부당한 대우 및 그녀가 혐오하고 미워하는 자와 함께 거주함으로써 그녀가 입게 될 피해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이 피해가 숙려 기간이 길어지는 피해보다 더 크니, 더 작은 피해로써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허락됩니다. 그렇기에 선지자께서는 파경을 요구한 여성에게 그녀의 상태에 대해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이 그의 말입니다."

여성이 생리 중일 때 그녀와 결혼을 계약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기본 원칙은 허용이며 이를 금지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성이 생리 중일 때 남편이 아내와 첫날밤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성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금지된 행위를 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생리가 끝날 때까지 그녀와 첫날밤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덟 번째 규정 : 그것(즉, 생리)을 기준으로 한 이혼 숙려 기간의 산정입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와 동침하였거나 단둘이 함께한 후 아내와 이혼하였

다면, 그녀가 생리를 하는 여성이고 임신한 여성이 아닐 경우, 그녀는 온전한 세 번의 생리가 끝날 때까지 숙려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

﴿وَٱلۡمُطَلَّقَٰتُ يَتَرَبَّصۡنَ بِأَنفُسِهِنَّ ثَلَٰثَةَ قُرُوٓءٖ...﴾

이혼 여성은 세 번의 생리를 참고 기다려야 하노라. [알-바까라: 228], 즉, 세 번의 생리 기간입니다. 만약 임신한 여성이라면, 그 기간이 길든 짧든 그녀의 숙려 기간은 온전히 출산할 때까지입니다. 이는 지고하신 하나님의 다음 말씀 때문입니다:

﴿...وَأُوْلَٰتُ الأَحۡمَالِ أَجَلُهُنَّ أَن يَضَعۡنَ حَمۡلَهُنَّ...﴾

임신한 여성은 태아를 낳을 때까지가 그녀의 기간이니라. [앗-딸라끄(이혼): 4], 만일 나이가 어려 생리를 시작하지 아니한 여성이나, 나이가 많아 생리를 단념한 여성, 혹은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생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생리를 하지 아니하는 여성이라면, 그녀의 숙려 기간은 삼개월입니다. 이는 지고하신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وَاللَّائِي يَئِسْنَ مِنَ الْمَحِيضِ مِن نِّسَائِكُمْ إِنِ ارْتَبْتُمْ فَعِدَّتُهُنَّ ثَلَاثَةُ أَشْهُرٍ وَاللَّائِي لَمْ يَحِضْنَ...﴾

그대들의 아내들 중 생리에 관해 단념한 여성은, 그대들이 의심이 든다면, 그녀의 숙려 기간은 삼개월이며 생리를 하지 않는 여성도 마찬가지니라. [앗-딸라끄(이혼): 4], 만약 생리를 하는 여성이로되 질병이나 수유와 같이 알려진 이유로 생리가 멈추었다면, 비록 그 기간이 길어질지라도 생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녀는 숙려 기간에 머물러야 하며, 생리가 돌아오면 그것으로 숙려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병에서 회복되거나 수유가 끝남으로써 그 원인이 사라졌음에도 생리가 돌아오지 않고 계속 멈춘 상태라면, 그녀는 그 원인이 사라진 시점부터 꼬박 일년 동안 숙려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실로 이것이 올바른 견해이니, 율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원인이 사라졌음에도 생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녀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생리가 멈춰버린 여성과 같아집니다.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그녀의 생리가 멈추었을 경우 그녀의 숙려 기간은 꽉

채운 1년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임신 기간에 해당하여 만일의 임신을 대비하는 9개월과, 숙려 기간을 위한 3개월입니다.

그러나 만일 혼인 계약 후 동침과 합방 이전에 이혼을 하였다면, 월경이나 다른 그 어떤 기준으로도 기다려야 할 숙려 기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يَا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إِذَا نَكَحْتُمُ الْمُؤْمِنَاتِ ثُمَّ طَلَّقْتُمُوهُنَّ مِن قَبْلِ أَن تَمَسُّوهُنَّ فَمَا لَكُمْ عَلَيْهِنَّ مِنْ عِدَّةٍ تَعْتَدُّونَهَا...﴾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믿는 여성들과 혼인한 후 그들과 동침하기 전에 이혼하였을 때, 너희가 계산해야 할 숙려 기간이 그들에게는 없노라...".

[알-아흐잡: 49].

아홉 번째 규정: 자궁이 비어있음에 대한 판정, 즉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궁이 비어있음을 판정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사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 숨졌을 때 남편이 있는 어떤 여성의 태아가 고인의 유산

을 상속받을 상황이라면, 그녀가 월경을 하거나 임신이 확인될 때까지 그녀의 남편은 그녀와 동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녀의 임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인이 숨질 당시에 태아가 존재했던 것으로 판결하여 그 태아가 유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월경을 할 경우에는 월경으로 인해 자궁이 비어 있음이 증명되므로 상속권이 없는 것으로 판결합니다.

열 번째 규정: 대세정(구슬)의 의무: 월경 중인 여성이 청결해졌을 때 신체 전체를 정화하여 대세정(구슬)을 해야만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파티마 빈트 아비 후바이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فَإِذَا أَقْبَلَتِ الْحَيْضَةُ فَدَعِي الصَّلَاةَ، وَإِذَا أَدْبَرَتْ فَاغْتَسِلِي وَصَلِّي».

"«월경이 시작되면 예배를 멈추고, 월경이 끝나면 전신 세정(구슬)을 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알-부카리 전승][1].

대세정(구슬)의 최소한의 의무는 머리카락과 털 아래의 피부까지 온몸을 씻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디스에 언급된 방법대로 하는 것이 더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로부터 전해진 바에 따르면, 아스마 빈트 샤칼이 그분께 생리 후의 전신 세정(구슬)에 관하여 물으니,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길:

«تَأْخُذُ إِحْدَاكُنَّ مَاءَهَا وَسِدْرَتَهَا فَتَطَهَّرُ فَتُحْسِنُ الطُّهُورَ، ثُمَّ تَصُبُّ عَلَى رَأْسِهَا فَتَدْلُكُهُ دَلْكًا شَدِيدًا، حَتَّى تَبْلُغَ شُؤُونَ رَأْسِهَا، ثُمَّ تَصُبُّ عَلَيْهَا الْمَاءَ، ثُمَّ تَأْخُذُ فِرْصَةً مُمَسَّكَةً -أَيْ: قِطْعَةَ قُمَاشٍ فِيهَا مِسْكٌ- فَتَطَهَّرُ بِهَا».

«여러분 중 한 사람은 물과 시드르를 가져와 정결을 취하되 온전히 하십시오. 그런 다음 머리에 물을 붓고 물이 머리카락 뿌리까지 닿도록 강하게 문지르십시오. 그런 다음 몸에 물을 부으십시오. 그리고 머스크 향이 밴 천 조각 -즉, 머스크가 묻어 있는

[1] 알-부카리: 생리 편, 생리의 시작과 끝 장(320번), 무슬림: 생리 편, 비정상 출혈 여성과 그녀의 전신 세정 및 예배 장(333번),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에서 전승.

천 조각-을 가져와 그것으로 정결하게 하십시오.» 아스마가 여쭈었습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스스로를 청결케 합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سُبْحَانَ اللَّهِ!»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아이샤가 그녀에게 피의 흔적을 닦아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무슬림 전승][1].

물이 뿌리까지 닿지 않을까 우려될 정도로 단단히 묶여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머리카락을 풀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사히흐 무슬림에 기록된 움무 살라마(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에 따른 것으로, 그녀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 질문하길 : '실로 저는 제 머리를 단단히 땋는 여성입니다. 제가 성관계 후 전신 세정을 위해 그것을 풀어야 합니까?' 또 다

[1]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로 알-부카리: '월경 편', '월경 후 목욕 장'(315번), 무슬림: '월경 편', '월경 후 목욕하는 여성이 피가 묻은 부위에 사향 솜을 사용하는 것의 권장 장'(332번) 전승.

른 전승에서는 '생리와 성관계 후 전신 세정을 위해 (풀어야 합니까)?'라고 물으니, 선지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

«لَا، إِنَّمَا يَكْفِيكِ أَنْ تَحْثِيَ عَلَى رَأْسِكِ ثَلَاثَ حَثَيَاتٍ ثُمَّ تُفِيضِينَ عَلَيْكِ الْمَاءَ فَتَطْهُرِينَ».

"아닙니다. 그대의 머리 위에 세 움큼의 물을 붓고 그 후 전신에 물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충분하니, 그리하면 그대는 청결하게 됩니다[1]."

예배 시간 중에 월경 중인 여성이 깨끗해졌다면, 정해진 시간 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서둘러 전신 세정(구슬)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여행 중인데 물을 구할 수 없거나, 물이 있긴 하지만 물을 사용했을 때 해를 입을 두려움이 있을 때, 혹은 병환이 있어 물을 사용하는 것이 해가 될 경우에는 전신 세정(구슬)을 대신하여 건조 세정(타얌뭄)을 합니다. 이는 그러한 장애 요인이 사라질 때까지이며, 장애 요인이 사라진 후에는 전신 세정(구슬)을 해야 합니다.

[1] 무슬림 전승: 월경 편, 목욕하는 여성의 땋은 머리에 대한 규정 장, 번호 (330), 움무 살라마(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

어떤 여성들은 예배 시간 중에 청결해졌음에도 다른 시간으로 대세정을 미루며 말하기를, 이 시간에는 완벽하게 청결을 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구실이나 변명도 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구슬을 실시할 때 최소한의 필수 요소만 갖추어 제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이후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온전하게 청결 의식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5장: 이스티하다(비정상 출혈)와 그 규정

부정출혈이란: 여성에게 출혈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되거나, 한 달에 하루나 이틀과 같은 짧은 기간 동안만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피가 결코 멈추지 아니하는 첫 번째 경우에 대한 증거는 사히흐 알부카리에서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로부터 전해져 확립된 바로, 그녀가 말하기를: 파티마 빈트 아비 후바이쉬가 하나님의 사도(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 말했습니다:

"يَا رَسُولَ اللَّهِ إِنِّي لَا أَطْهُرُ".

"하나님의 사도여! 저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전승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أَسْتَحَاضُ فَلَا أَطْهُرُ".

"제가 하혈을 하여 깨끗해지지 않습니다[1]."

피가 아주 잠시 멈출 때를 제외하고는 출혈이 끊이지 않는 두 번째 경우에 대한 증거는 함나 빈트 자흐쉬의 하디스입니다. 그녀가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 다가와 말하기를:

"يَا رَسُولَ اللَّهِ إِنِّي أَسْتَحَاضُ حَيْضَةً كَثِيرَةً شَدِيدَةً".

"하나님의 사도여! 실로 저는 아주 많고 심한 하혈을 겪고 있습니다." [하디스.. 아흐마드, 아부 다우드, 앗-티르미디[2] 전승. 그리고 그는 이를 사히흐로

---

[1] 알-부카리(우두의 서, 피를 씻는 장, 228번)와 무슬림(월경의 서, 비정상 출혈 여성과 그녀의 목욕 및 예배 장, 333번) 전승,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

[2] 아흐마드(6/349), 아부 다우드: 청결의 서, '생리가 시작되면 예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 자의 장'(287번), 앗-티르미디: 청결의 장들, '비정상 출혈이 있는 여성이 한 번의 전신 세정으로 두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에 관한 장'(128번), 함나 빈트 자흐쉬(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에서 전승.

판정하였으며, 이맘 아흐마드로부터 사히흐 판정을, 알-부카리로부터 하산 판정을 전하였음.][1].

이스티하다(부정출혈)의 상태:

부정출혈이 있는 여성에게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비정상 출혈(이스티하다) 이전에 명확히 알고 있는 월경(하이드) 기간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 여성은 이전에 알고 있던 월경 기간으로 돌아가 그 기간을 월경기로 보내며 월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외의 기간은 비정상 출혈로 간주되어, 비정상 출혈을 겪는 여성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예로서 매월 초 6일 동안 생리를 하던 여성이 있다면, 그리하여 그녀에게 부정출혈이 발생하여 혈이 지속적으로 흐르게 되었다면, 그녀의 생리 기간은 매월 초의 6일이며 그 외의 기간은 부정출혈입니다.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1] 수난 앗-띠르미디: 정결의 장,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는 여성이 한 번의 구슬로 두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에 관한 장, 하디스 (128번) 이후.

여기시길)가 전한 하디스에 따르면 파티마 빈트 아비 후바이쉬가 말하였습니다 : "오 하나님의 사자시여, 실로 저는 하혈이 계속되어 깨끗해지지 못하는데, 제가 예배를 중단해야 하겠나이까?"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لَا، إِنَّ ذَلِكَ عِرْقٌ، وَلَكِنْ دَعِي الصَّلَاةَ قَدْرَ الْأَيَّامِ الَّتِي كُنْتِ تَحِيضِينَ فِيهَا ثُمَّ اغْتَسِلِي وَصَلِّي».

"아닙니다. 실로 그것은 핏줄(에서 나오는 피)입니다. 다만 그대가 월경을 하던 날수만큼 예배를 멈추십시오. 그런 다음 몸을 깨끗이 씻고 예배하십시오." 알-부카리 전승[1].

그리고 사히흐 무슬림에서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움 하비바 빈트 자흐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امْكُثِي قَدْرَ مَا كَانَتْ تَحْبِسُكِ حَيْضَتُكِ ثُمَّ اغْتَسِلِي وَصَلِّي».

"그대의 월경이 그대를 멈추게 하던 기간만큼

[1] 알-부카리 전승: 월경의 서, 월경의 장, 그리고 월경이 가능한 경우 월경과 임신에 관한 여성들의 진술이 인정되는 것, 번호 (325),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

머무른 후, 대세정(구슬)을 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1].

그러므로 자신의 일정한 생리 기간을 아는 비정상 출혈(이스티하다)을 겪는 여성은 평소의 생리 기간만큼 머문 뒤, 전신 세정(구슬)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나오는 피에는 개의치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 부정출혈 이전에 알려진 생리가 없는 경우로, 처음 피를 본 순간부터 부정출혈이 계속해서 이어진 경우입니다. 이 여성은 혈의 특징을 구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은색, 걸쭉함, 혹은 냄새로 구별되는 것을 생리로 간주하여 생리의 규정을 적용하며, 그 외의 것은 부정출혈로 간주하여 부정출혈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 예는 어떤 여성이 처음으로 피를 보았고 그 출혈이 지속되었으나, 열흘 동안은 검은 피를 보고 그 달의 나머지 기간은 붉은 피를 보거나, 열흘 동안은 짙은 피를 보며 그 달의 나머지 기간은 묽은 피를 보

[1] 무슬림 전승: 월경 편, 비정상 출혈 여성과 그녀의 목욕 및 예배 장, 번호 (334),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한 하디스.

거나, 열흘 동안은 생리혈의 냄새가 나고 그 달의 나머지 기간은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그녀의 생리는 첫 번째 예에서는 검은 피이며, 두 번째 예에서는 짙은 피이고, 세 번째 예에서는 냄새가 나는 피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부정출혈입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아부 후바이쉬의 딸 파티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إِذَا كَانَ دَمُ الْحَيْضَةِ فَإِنَّهُ أَسْوَدُ يُعْرَفُ، فَإِذَا كَانَ ذَلِكَ فَأَمْسِكِي عَنِ الصَّلَاةِ فَإِذَا كَانَ الْآخَرُ فَتَوَضَّئِي وَصَلِّي؛ فَإِنَّمَا هُوَ عِرْقٌ».

"만약 생리혈이라면 검은색이라 구별할 수 있으니, 만약 그러할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만약 (생리혈이 아닌) 다른 피라면 세정(우두)을 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실로 그것은 혈관(에서 나오는 피)일 뿐입니다." [아부 다우드와 안-나사이 전승, 이븐 히반과 알-하킴이 사히흐로 판정함][1].

---

[1] 아부 다우드 전승 : 청결의 서, 생리가 시작되면 예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 자의 장, 번호 (286), 안-나사이 : 청결의 서, 출혈이 계속되기 전 자신의 생리 주기를 이미 알고 있는 비정상 출혈 여성에 관하여 전해진 것의 장, 번호 (211), 이븐 마자 : 청결과 그 쑨나의 서, 출혈이 계속되기 전

비록 이 하디스의 전승 계보와 본문에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학자들(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길)은 이를 실천하였으며, 이는 그녀를 대부분 여성들의 관례로 되돌리는 것보다 더 합당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그녀에게 명확한 생리 기간이 없고 올바른 구별도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녀가 처음 혈을 본 순간부터 비정상 출혈이 계속되며 그녀의 혈이 단일한 상태만을 띠거나 생리로 간주할 수 없는 불규칙한 상태를 띠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성은 대부분 여성들의 관례를 따를 것이니, 매월 그녀의 생리 기간은 6일 혹은 7일입니다. 이는 그녀가 피를 처음 본 시기부터 시작되며, 그 외의 것은 비정상 출혈입니다.

이에 대한 예로는 그 달의 5일에 처음으로 피를 보고, 색깔이나 그 밖의 어떤 것으로도 생리임을 구

자신의 생리 주기를 이미 알고 있는 비정상 출혈 여성에 관하여 전해진 것의 장, 번호 (620), 이븐 힙반의 ≪사히흐≫ (1348), 알-하킴의 ≪알-무스타드라크≫ (618),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

별할 만한 합당한 특징 없이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그러할 경우 매달 그녀의 생리 기간은 6일 또는 7일이 되며, 이는 매달 5일부터 시작됩니다. 함나 빈트 자흐쉬(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한 하디스에 따르면 그녀가 말하였습니다 : “하나님의 사도여! 실로 저는 매우 심하고 많은 하혈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그것이 저로 하여금 예배와 단식을 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그러자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أَنْعَتُ لَكِ (أَصِفُ لَكِ اسْتِعْمَال) الْكُرْسُفَ (وهُوَ القُطْنُ) تَضَعِينَهُ عَلَى الْفَرْجِ، فَإِنَّهُ يُذْهِبُ الدَّمَ».

"내가 그대에게 면(솜)의 사용을 일러주노니 그것을 은밀한 부위에 대십시오. 실로 그것이 피를 멎게 할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إِنَّمَا هَذَا رَكْضَةٌ مِنْ رَكَضَاتِ الشَّيْطَانِ، فَتَحَيَّضِي سِتَّةَ أَيَّامٍ أَوْ سَبْعَةً فِي عِلْمِ اللَّهِ تَعَالَى، ثُمَّ اغْتَسِلِي حَتَّى إِذَا رَأَيْتِ أَنَّكِ قَدْ طَهُرْتِ وَاسْتَنْقَيْتِ فَصَلِّي أَرْبَعًا

وَعِشْرِينَ أَوْ ثَلَاثًا وَعِشْرِينَ لَيْلَةً وَأَيَّامَهَا وَصُومِي».

«실로 이는 사탄의 발길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 6일이나 7일을 생리 기간으로 삼으십시오. 그런 다음 전신 세정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청결해지고 깨끗해졌음을 알게 되면, 24일이나 23일의 밤낮 동안 예배를 드리고 단식하십시오.» 하디스. [아흐마드, 아부 다우드, 앗-티르미디 전승. 그는 이를 사히흐로 판정하였다[1]. 또한 아흐마드로부터 그가 이를 사히흐로 판정했다고 전해지며, 알-부카리로부터 그가 이를 하산으로 판정했다고 전해진다][2].

«육일 혹은 칠일»이라 하신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의 말씀은 임의로 선택하라는 뜻이 아니요, 오히려 신중히 숙고하여

---

1 함나 빈트 자흐쉬(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한 하디스에서 아흐마드(6/439), 아부 다우드(청결의 서, 생리가 시작되면 예배를 멈추어야 한다고 말한 자의 장, 287번), 앗-티르미디(청결의 장들, 비정상 출혈이 있는 여성이 한 번의 전신 세정으로 두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에 대한 장, 128번) 전승.

2 수난 앗-티르미디: 청결의 장, 비정상 출혈 여성이 한 번의 전신 세정으로 두 예배를 결합하는 것에 관한 장, 하디스 (128번) 뒤.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신체적 체질이 자신과 유사하고 나이와 혈연이 가까운 여성들 중에서 자신의 상태와 가장 근접한 경우를 살펴야 할 것이며, 그녀의 혈 가운데 생리에 가장 가까운 것을 살피는 등 이와 같은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일 여섯에 더 가깝다면 그것을 여섯으로 할 것이며, 만일 일곱에 더 가깝다면 그것을 일곱으로 할 것입니다.

비정상 출혈(이스티하다)이 있는 여성과 유사한 자의 상태:

여성에게 자궁이나 그 아래 부위의 수술과 같이 음부에서 출혈을 유발하는 원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수술 후에 그녀가 생리를 할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그 수술이 자궁을 완전히 적출하는 것이거나, 피가 나오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수술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여성에게는 비정상 출혈 여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에 대한 규정은 청결해진 이후에 누

런 분비물이나 탁한 분비물, 또는 습기를 보는 여성의 규정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예배와 단식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그녀와의 성관계도 금지되지 아니하고, 이 피로 인해 전신 세정이 의무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에는 피를 씻어내야만 하며, 피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음부에 천 등을 덧대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예배를 위해 우두(부분 세정)를 해야 하되, 다섯 번의 예배처럼 정해진 시간이 있는 예배라면 예배 시간이 시작된 후에만 우두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자발적 예배처럼 정해진 시간이 없는 예배라면 예배를 행하고자 할 때 우두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수술 후 그녀의 생리가 멈추었음을 알 수 없고, 오히려 생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여성에 대한 규정은 비정상 출혈이 있는 여성(무스타하다)의 규정과 같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예언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파티마 빈트 아비 후바이쉬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입니다 :

«إِنَّمَا ذَلِكَ عِرْقٌ وَلَيْسَ بِالْحَيْضَةِ، فَإِذَا أَقْبَلَتِ الْحَيْضَةُ فَاتْرُكِي الصَّلَاةَ».

"실로 그것은 혈관에서 나오는 피일 뿐 월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월경이 시작되면 예배를 중단하십시오[1]."

그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فَإِذَا أَقْبَلَتِ الْحَيْضَةُ».

«월경이 시작될 때면» 이는 월경 외 출혈(이스티하다)을 겪는 여성에 대한 규정이 시작과 끝이 명확한 정상적인 월경이 가능한 여성에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반면, 정상적인 월경이 불가능한 여성의 경우 그녀의 출혈은 어떠한 경우에도 혈관에서 나오는 피(정맥혈)로 간주됩니다.

비월경 출혈(이스티하다)에 관한 규정:

우리는 앞서 살펴본 바를 통해 언제 피가 생리가 되고 언제 부정출혈이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리일 경우에는 생리의 규정이 적용되며, 부

[1] 알-부카리(우두의 서, 피를 씻어내는 장, 228번), 무슬림(생리의 서, 부정출혈 여성과 그녀의 전신 세정 및 예배의 장, 333번),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에서 전승.

정출혈일 경우에는 부정출혈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월경에 관한 중요한 규정은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이스티하다(비월경성 출혈)의 규정은 청결 상태의 규정과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이스티하다 상태의 여성과 청결한 상태의 여성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첫째: 그녀는 매 예배마다 세정(우두)을 해야만 합니다,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파티마 빈트 아비 후바이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ثُمَّ تَوَضَّئِي لِكُلِّ صَلَاةٍ».

«그런 다음 매 예배마다 세정(우두)을 하십시오.» '피를 씻는 것' 장에서 알-부카리 전승, 그 의미는 그녀가 정해진 시간의 예배를 위해 그 예배 시간이 시작된 이후에만 우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예배의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세정(우두)을 합니다.

둘째: 그녀가 세정(우두)을 하고자 한다면 피의 흔적을 씻어내고, 피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음부에 솜을 댄 후 천으로 동여맵니다. 이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함나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أَنْعَتُ لَكِ الْكُرْسُفَ فَإِنَّهُ يُذْهِبُ الدَّمَ». قَالَتْ: فَإِنَّهُ أَكْثَرُ مِنْ ذَلِكَ. قَالَ: «فَاتَّخِذِي ثَوْبًا». قَالَتْ: هُوَ أَكْثَرُ مِنْ ذَلِكَ. قَالَ: «فَتَلَجَّمِي».

"«그대에게 솜을 권하노니 실로 그것이 피를 멎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그보다 더 많습니다.» 하매, 선지자께서 이르시길 «그러면 옷을 대십시오.» 하니 그녀가 말하길 «그보다 더 많습니다.» 하매 선지자께서 이르시길 «단단히 동여매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하디스, 그 이후에 배출되는 것은 그녀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께서 파티마 빈트 아비 후바이쉬에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اجْتَنِبِي الصَّلَاةَ أَيَّامَ حَيْضِكِ، ثُمَّ اغْتَسِلِي وَتَوَضَّئِي لِكُلِّ صَلَاةٍ، ثُمَّ صَلِّي، وَإِنْ قَطَرَ الدَّمُ عَلَى الْحَصِيرِ».

"그대의 생리 기간에는 예배를 멀리하십시오. 그런 다음 전신 세정을 하고 매 예배를 위해 세정(우두)을 한 후 예배를 드리십시오. 비록 돗자리 위에 피가 떨어질지라도. "

[아흐마드, 이븐 마자 전승][1].

세 번째 : 부부 관계입니다. 그것을 삼감으로써 죄악에 빠질 두려움이 없는 경우 그 허용 여부에 대하여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올바른 견해는 전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시대에 열 명 혹은 그 이상의 많은 여성들이 생리 외의 출혈을 겪었음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께서 그들과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فَاعْتَزِلُواْ النِّسَاء فِي الْمَحِيضِ...﴾

그대들은 생리 중의 아내들을 멀리할지니라 [알

[1] 아흐마드(6/ 204) 및 이븐 마자 전승, 청결과 그 쑨나의 서, 피가 계속 흐르기 전 생리 기간을 계산한 비정상 출혈 여성에 관하여 전해진 장, 번호 (624), 아이샤(하나님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가 전한 하디스.

-바까라: 222] 이는 그 이외의 일에 있어서는 아내를 멀리할 의무가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녀에게 예배가 허락되므로, 성관계를 가지는 일은 더욱 가벼운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성관계를 가지는 일을 월경 중인 여성과의 성관계에 유추 적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금지를 주장하는 자들의 견해에서조차 이 두 경우는 동일하지 않으며, 차이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유추 해석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6장: 산후 출혈과 그 규례에 관하여

니파스(산후출혈)란 출산으로 인하여 자궁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말하며, 출산과 함께, 혹은 출산 후에, 혹은 진통을 동반하여 출산 이틀이나 사흘 전에 나타나는 것을 이릅니다.

그리고 셰이쿨 이슬람 이븐 타이미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이 진통을 시작할 때 보는 것은 산후출혈입니다.» 이를 이틀이나 사흘로 제한하지 않았으니, 그 의미는 출산이 뒤따르는 진통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산후출혈이

아닙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것의 최소와 최대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습니다." 셰이크 타끼윳딘은 『입법자가 규정을 결부시킨 명칭들』에 관한 그의 논서(37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 «산후 출혈(니파스)은 최소 기간이나 최대 기간에 한도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여성이 40일, 60일, 혹은 70일 이상 피를 보고 그것이 멈추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산후 출혈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출혈(파싸드)입니다. 이 경우 한도는 40일이 되는데, 전승(아사르)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것이 일반적인 최대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덧붙여 말합니다 : 이에 따라 그녀의 출혈이 40일을 초과하였으나 그 이후에 혈이 멈추는 평소 주기가 있었거나 곧 멈출 징후가 나타났다면, 그녀는 혈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40일이 끝나는 시점에 전신 세정을 해야 하니, 그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단, 그 시기가 그녀의 생리 기간과 겹친다면 그녀는 그 생리 기간

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그 후에 혈이 멈춘다면 마땅히 그것은 그녀의 주기가 될 것이니, 장차 그녀는 이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혈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녀는 비정상 출혈 여성입니다. 그녀는 앞서 언급된 비정상 출혈 여성에 대한 규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십 일이 지나기 전이라 할지라도 출혈이 멈추어 청결해졌다면 그녀는 청결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전신 세정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단식을 하고 남편은 그녀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출혈이 멈춘 기간이 하루 미만이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알 무그니』[1]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산후 출혈(니파스)은 오직 인간의 창조된 형상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을 출산하였을 때에만 성립합니다. 만일 그녀가 인간의 창조된 형상이 분명하지 않은 작은 유산물을 배출하였다면, 그녀의 피는 산후 출혈의 피가 아니라 단지 혈관에서 흐르는 피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녀에 대한 율법적 판결은 월

[1] 알-무그니(1/252-253).

경 외 출혈(이스티하다)을 겪는 자의 판결과 같습니다. 인간의 창조된 형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최소 기간은 임신이 시작된 날로부터 80일이며, 대개는 90일입니다.

알 마즈드 이븐 타이미야가 말하기를 «그녀가 출산 이전 산통 중에 피를 보았다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 것이며 그 후에는 예배와 단식을 삼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출산 후 상황이 겉으로 드러난 바와 다르게 밝혀진다면 그녀는 되돌아가서 보충해야 할 것이나 상황이 밝혀지지 아니한다면 겉으로 드러난 판결이 지속되니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 이는 샤르흐 알 이끄나으[1]에서 그로부터 전해진 것입니다.

니파스(산후 출혈)의 규정:

산후 출혈(니파스)에 관한 규정은 월경(하이드)에 관한 규정과 완전히 동일하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1] 카쉬샤프 알-끼나으 (219/1)

첫째: 숙려 기간은 산후 출혈이 아니라 이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왜냐하면 만약 출산 전에 이혼이 선언되었다면 숙려 기간은 산후 출혈이 아니라 출산으로 끝나며, 만약 출산 후에 이혼이 선언되었다면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생리가 재개되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지 않겠다고 맹세한 기간에는 생리 기간이 포함되어 계산되며 산후 출혈 기간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일라으란 : 남편이 영원히 또는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맹세한 후 아내가 잠자리를 요구한다면, 맹세한 날부터 그에게 4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아내의 요구가 있다면, 그는 잠자리를 가지거나 이혼하도록 강제됩니다. 이 기간 중 아내에게 산후 출혈이 발생한다면 이는 남편의 기간에 산정되지 않으며, 그 기간만큼 4개월에 추가됩니다. 이는 그 기간이 남편의 기간에 산정되는 월경과는 다릅니다.

세 번째: 성년은 생리로 이루어지며 산후 출혈로는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여성은 분비물을 배출하기 전에는 임신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성년의 도달은 임신 이전의 분비물 배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 생리혈이 멈추었다가 평소의 생리 기간 내에 다시 시작된다면 그것은 확실히 생리입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평소 생리 기간이 8일인데 4일 동안 생리를 하고 이틀 동안 멈추었다가 7일째와 8일째에 다시 시작된다면, 이렇게 다시 시작된 것은 확실히 생리이며 생리에 관한 규정이 그것에 적용됩니다. 산후 출혈(니파스)의 경우, 40일 이전에 출혈이 멎었다가 40일 이내에 다시 발생한다면 이는 의심스러운 상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여성은 정해진 시간의 의무 예배를 드리고 제시간에 단식을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 사항을 제외하고 월경 중인 여성에게 금지되는 일들이 그녀에게도 똑같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여성이 정결해진 후에는, 이 출혈 기간 동안 행했던 것들 중 월경 중인 여

성이 의무적으로 보충해야 하는 사항들을 보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발리 학파의 법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견해입니다[1].

올바른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후출혈(니파스)로 볼 수 있는 기간 내에 그녀에게 출혈이 다시 발생한다면 그것은 산후출혈이며, 그렇지 않다면 생리입니다. 다만, 그녀에게 출혈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는 예외이니, 이 경우 그것은 비정상 출혈(이스티하다)이 됩니다.

이는 '알-무그니'[2]에서 이맘 말릭(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길)으로부터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말릭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녀가 이틀이나 사흘 후에 - 즉, 피가 멈춘 후를 의미함- 피를 본다면 그것은 산혈이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생리입니다.» 이는 이슬람의 대학자 이븐 타이미야(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의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

[1] 알-무그니 (253/1).

[2] 알-무그니 (253/1).

실제로는 혈(血)의 문제에 있어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이란 사람들의 지식과 이해력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성서와 순나에는 모든 것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행함에 결함이 있어 다시 이행하지 않고서는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두 번 단식하게 하거나 두 번 따와프(순회)하도록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종복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의무 사항을 실천하였다면 그의 책임은 면제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

﴿لَا يُكَلِّفُ ٱللَّهُ نَفۡسًا إِلَّا وُسۡعَهَا...﴾

하나님께서는 영혼에게 오직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짐 지우시느니라... [알-바까라: 286],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فَٱتَّقُواْ ٱللَّهَ مَا ٱسۡتَطَعۡتُمۡ...﴾

그러니 그대들은 능력껏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앗-타가분: 16].

생리와 산후출혈의 다섯 번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리의 경우 여성이 평소의 생리 기간 이전에 청결해졌다면 남편이 그녀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기피됨 없이 허용됩니다. 반면 산후출혈의 경우 여성이 사십 일 이전에 청결해졌다면 학파의 널리 알려진 견해에 따라 남편이 그녀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기피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견해는 남편이 그녀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기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기피 또한 이슬람의 규정이므로 이슬람의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이맘 아흐마드가 우스만 빈 아비 알-아스로부터 전승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녀가 40일 전에 그에게 오매 그가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시오» 하였습니다[1].

이는 기피됨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청결해졌음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성관계로 인해 생리

[1] 알-무그니(2/ 252), 그리고 우스만 빈 아비 알-아스의 전승은 압둘 라자끄의 『알-무싼나프』(1202번), 이븐 아비 샤이바의 『알-무싼나프』(17450번), 아드-다리미의 『앗-수난』(990번), 이븐 알-자루드의 『알-문타까』(118번) 전승.

혈이 다시 흐를 것을 우려하여 예방 차원에서 행한 것일 수 있으며, 혹은 그 밖의 다른 이유들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제7장: 생리를 막거나 유도하는 것, 그리고 임신을 막거나 낙태시키는 것의 사용에 관하여

여성이 월경을 막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하에 허용됩니다:

첫째: 그녀에게 해악이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만일 그로 인하여 그녀에게 해악이 미칠 것이 염려된다면 이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وَلَا تُلۡقُواْ بِأَيۡدِيكُمۡ إِلَى ٱلتَّهۡلُكَةِ...﴾

그대들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지 말지니라

[알-바까라: 195]

﴿...وَلَا تَقۡتُلُوٓاْ أَنفُسَكُمۡۚ إِنَّ ٱللَّهَ كَانَ بِكُمۡ رَحِيمٗا﴾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을 살해하지 말지니라.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자애로우신 분이심이

라. [안-니싸: 29].

두 번째: 만약 남편이 그 일과 이해관계가 있다면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이혼 후 대기 기간 중에 있어 남편에게 아내의 생활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경우, 아내가 대기 기간을 연장시켜 남편이 지불해야 할 생활비를 늘릴 목적으로 월경을 억제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아내는 남편의 허락 없이는 월경을 억제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월경을 억제하는 것이 임신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반드시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신체를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균형과 안전에 더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월경을 유도하는 것의 사용 또한 두 가지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첫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그것을 이

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단식을 피할 목적으로 라마단이 다가올 때 그것을 사용하거나, 예배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사용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그것은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생리의 발생은 남편이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남편의 동의 없이는 그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비록 그녀가 이혼한 상태라 하더라도, 만일 남편에게 재결합의 권리가 있다면 이는 남편의 재결합 권리 소멸을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피임의 사용에 관해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임신을 영구적으로 막는 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임신을 단절시키고 자손을 감소시켜 이슬람 공동체를 번성하게 하려는 율법의 취지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있는 자식들이 사망하여 결국 자식 없는 과부로 남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일시적으로 임신을 방지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잦은 임신을 겪고 그 임신이 그녀를 지치게 하여 2년에 한 번이나 그와 비슷한 주기로 임신을 조절하고자 한다면, 남편이 이를 허락하고 여성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는 허용됩니다. 그 증거는 선지자(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푸시길) 시대에 교우들이 아내들이 임신하지 않도록 아내들과의 관계에서 체외 사정을 하였으나[1] 그것을 금지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체외 사정이란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다가 사정할 때에 빼내어 음부 밖으로 사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태아를 유산시키는 것의 사용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째, 낙태를 통해 목숨을 끊고자 의도하는 경우, 만약 영혼이 불어넣어진 이후라면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당한 권

[1] 알-부카리 전승: 결혼의 서, 질외사정 편, 번호 (5209), 무슬림: 결혼의 서, 질외사정 규정 편, 번호 (1440), 자비르(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하디스.

리 없이 소중한 목숨을 끊는 것이며, 소중한 목숨을 끊는 것은 꾸란과 순나, 그리고 무슬림들의 합의에 의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영혼이 불어넣어지기 전이라면 학자들은 그것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것을 허용한 자들도 있고, 그것을 금지한 자들도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말하길 «그것이 핏덩어리가 되지 않은 한 허용됩니다» 하였으니, 즉 40일이 경과하지 않은 한입니다. 또한 그들 중 일부는 말하길 «그 안에 인간의 형상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한 허용됩니다» 하였습니다.

가장 신중한 견해는 낙태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단, 어머니가 병에 걸려 임신을 감당할 수 없거나 그와 유사한 상황 등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한 때에는 낙태가 허용되나, 인간의 형체가 분명해질 수 있는 시간이 경과했다면 금지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둘째, 태아를 배출시키는 목적이 태아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임신 기간이 끝나고 출산

이 임박했을 때 태아를 인위적으로 배출시키는 것은 허용되는데, 단 이로 인해 산모나 아이에게 해가 미치지 않아야 하고 수술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만약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첫째: 어머니와 태아가 모두 살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수술은 출산이 어려워져 수술이 필요한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는 신체가 인간에게 맡겨진 위탁물이기 때문에, 더 큰 유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위해가 우려되는 방식으로 신체를 다루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술에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더라도 실제로는 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어머니가 사망하고 태아도 사망한 경우, 아무런 유익이 없으므로 태아를 꺼내기 위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산모는 살아 있고 태아는 죽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태아를 꺼내기 위한 수술을 진행하는 것

이 허용됩니다. 단, 산모에게 해가 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지만, 명백하게도 태아가 죽었을 경우 수술 없이는 거의 배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아가 산모의 뱃속에 계속 남아있게 되면 향후 산모의 임신을 막게 되고 산모에게 고통을 주며, 만약 그녀가 이전 남편으로부터의 숙려 기간 중에 있다면 계속해서 혼인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 어머니가 숨을 거두었으나 태아는 살아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태아의 생존을 기대할 수 없다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태아)의 생존이 기대된다면, 그 일부가 이미 밖으로 나왔을 경우 나머지를 꺼내기 위해 어머니의 배를 절개할 것입니다. 허나 아무것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 학자들—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길—이 말하였습니다. «태아를 꺼내기 위해 어머니의 배를 절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신체 훼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바

른 견해는 그것(절개) 없이는 태아를 꺼낼 수 없다면 배를 절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븐 후바이라의 선택입니다. 그는 『알 인솨프』[1]에서 «이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합니다 :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 수술을 집행하는 일은 신체의 훼손이 아니니, 이는 배를 절개한 후 다시 봉합하기 때문이며, 살아있는 자의 존엄성이 죽은 자의 존엄성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고한 생명을 파멸로부터 구하는 것은 의무이며,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무고한 인간이니 그를 구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주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남편과 같이 태아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 중요한 주제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했던 바를 마칩니다. 본 글에서는 사안의 근본 원칙들과 그 규정들에만 국한하여 다루었습니다. 그렇

[1] 알-인솨프 (556/2).

지 않을 경우 그 세부 사항들과 지엽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일들은 끝없는 바다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찰력 있는 자는 파생된 것을 그 근본으로, 개별적인 것을 그 보편성과 규정으로 되돌릴 수 있으며, 사물들을 그 유례에 견주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무프티(율법 해석가)는 자신이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 사이에서 그분의 사도들이 가져온 것을 전달하고 이를 피조물들에게 설명하는 매개자이며, 성서와 순나에 담긴 내용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실로 이 두 가지는 종이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부여받은 두 가지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성서와 순나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마땅히 그 발언자에게 반박하여 배격해야 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을 말한 자가 학문적 노력을 다하여 참작의 여지가 있고 그 노력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그의 오류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프티는 지고하신 하나님을 위해 의도를 순수하게 지녀야 하며, 직면하는 모든 사안에 있어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굳건함과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성공을 지고하신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는 성서와 순나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만 하며, 이에 대해 살펴보고 탐구하거나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학자들의 견해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해 찾아보지만, 그 규정에 대하여 마음을 놓을 만한 것을 찾지 못하며, 어쩌면 그에 대한 언급을 전적으로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서와 순나로 되돌아간다면, 그 규정이 가깝고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는 진실함과 지식, 그리고 이해의 정도에 따른 것입니다.

무프티는 모호한 상황에서 판결을 내림에 있어 서두르지 말고 신중을 기해야만 합니다. 성급하게

판결을 내렸다가 조금만 더 살펴보아도 자신이 그 판결에서 잘못하였음이 확인되어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쩌면 자신이 내린 율법 해석을 바로잡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프티가 신중하고 철저함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들은 그의 말을 신뢰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급한 것을 보게 된다면, 성급한 자는 실수가 많은 법이므로, 사람들은 그가 내리는 율법 해석에 대해 신뢰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성급함과 실수로 인하여 자신이 지닌 지식과 올바름을 자기 자신과 타인들로부터 빼앗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와 무슬림 형제들을 그분의 올곧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의 보살핌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시며,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저희를 잘못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지고하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실로 그분은 관대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우리의 선지자 무함마드와 그의 모든 가족과 교우들에게 깃들기를 빕니다.

모든 찬미는 그분의 은혜로 선행들이 완성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필요로 한 자의 펜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무함마드 앗-솨리흐 알-우사이민

금요일 아침에

이슬람력 1392년 샤으반월 14일

❊❊❊

الفهرس

여성의 자연적인 출혈에 관한 서한 2

제1장: 월경의 의미와 그 지혜 5

제2장: 월경의 시기와 기간 6

제3장: 월경에 발생하는 돌발 상황 21

제4장 생리의 규정에 관하여. 29

제5장: 이스티하다(비정상 출혈)와 그 규정 59

이스티하다(부정출혈)의 상태: 61

비정상 출혈(이스티하다)이 있는 여성과 유사한 자의 상태: 68

비월경 출혈(이스티하다)에 관한 규정: 70

제6장: 산후 출혈과 그 규례에 관하여 74

니파스(산후 출혈)의 규정: 77

제7장: 생리를 막거나 유도하는 것, 그리고 임신을 막거나 낙태시키는 것의 사용에 관하여 83

❋❋❋

ko130v3.1 - 14/06/2026

رئاسة الشؤون الدينية بالمسجد الحرام والمسجد النبوي

رسالة الحرمين

Message of The Two Holy Mosques

Guidance content for the visitors of the Holy Mosque and the Prophet's Mosque in languages

978-603-517-656-9